70돌 중앙신도회, 국민 행복 '불자대회' 연다

2월 18일 28대 1차 대의원총회
9~10월 전국 불자 한 자리 결집

선명상 등 한국불교 대중화 나서
70년 역사 톺아보는 기념식 개최
선명상 대중화·청년 포교 활성화
올 신년 사업계획안도 함께 발표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월 18일 '제28대 1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사진은 안건을 의결하는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불자들을 한 자리에 결집, 국민 행복을 기원하고 한국불교 대중화를 견인할 '불자대회'를 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8대 1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7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의 건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안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가결됐다.

중앙신도회는 오는 9~10월 광화문광장과 우정국로 일대에서 '중앙신도회 창립70주년 불자대회(가칭, 이하 불자대회)'를 개최한다. 7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 회의결과 보고의 건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 공헌 사업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과 연계한 이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국불교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국민 마음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에서는 선명상 수행 실천, 108배 정진, 금강경 독송 정진 등 수행 위주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70주년 기념식'도 올해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기념식은 중앙신도회 70년의 역사를 톺아보고 혼란스러운 정국 속 국민통합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 교역직 스님, 국회의원, 타종단·이웃종교 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학규 준비위원장은 "기념식에는 70주년 활동 보고 및 비전선포식과 국민통합 실천 퍼포먼스 등이 열릴 예정"이라며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여법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5년 신년 사업계획안도 확정됐다. △선명상 대중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청년불자 포교 △불교 사회공동선 구현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특히 중앙신도회는 종단 주력 사업인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역 교구신도회 중심으로 체계적인 선명상 콘텐츠 보급 및 확산을 추진한다. 선명상 세미나, 템플스테이는 물론 포교원이 개발한 순례길 코스를 활용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청년 포교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중앙신도회는 대불련, 대불청 등 청년 신도조직과 함께 '청년 불자 포교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청년 불자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포교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정원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중앙신도회가 창립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70주년 특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식과 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청년 포교,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 올해 주요 사업을 강단있게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28대 집행부의 고문, 지도위원이 위촉됐다. 상임고문에는 김의정, 이기흥 씨가, 고문에는 강창일 외 18명, 지도위원에는 강민국 외 70명이 위촉됐다.

조계종 종헌종법특위, '총림법' 개정 추진

추천직 임회위원 대신 선출직으로
방장스님 권한 축소 우려 목소리도



추천직 총림 임회위원 대신 교구종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총림 주지 추천도 임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총림법 개정안'이 논의에 올랐다. 법이 개정되면 총림 방장스님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림 추천직 임회의원을 선출직으로, 임회 관장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총림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사진〉

현행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의 여법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하는 임회를 둔다. 개정안에는 추천직위원 대신 선출직위원으로의 변경이 담겼다. 이와 함께 현행 주지가 추천한 국장급 이상의 교역직종무원 3인을 삭제한다. 대신 선출직 임회위원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법계 종덕 이상의 재적승 13인으로 한다고 개정한다.

임회의 관장 사항을 '심의'에서 '심의 의결'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총림의 주지 추천을 비롯해 예결산, 회칙(정규) 제개정, 중요한 불사 또는 사업 계획, 재산처분과 운영 등을 임회에서 심의가 아닌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림법 개정안'을 제안한 선광 스님은 "현행 총림법에 따라 임회를 구성할 경우, 방장스님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게 돼 총림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면서 "대중의 공의를 반영하고 균형과 견제를 위해 임회 위원 구성을 추천직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방장스님이 임회 의결이 없으면 총림주지 추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에 총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 스님들과 먼저 논의한 다음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계총림 송광사 중앙종회의원인 일화 스님은 "현재 종헌종법특위 위원 스님 중 총림에 속한 스님이 2명 밖에 없다. 총림 관련 부분을 섣불리 다루기 어렵다"면서 "각 총림마다 고유 분위기와 상황이 있는 만큼, 다른 총림의 종회의원 스님들과도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개정안에 대해 총림에 속한 종회의원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7차 회의는 3월 4일 오후 3시 열린다. 임은호 기자

화엄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개최

3월 20일 오후 1시 화엄원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20일 오후 1시 경내 화엄원에서 개최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8일부터 3월 10일 오후 5시까지 교구 선관위(화엄사 종무소)에 접수하며,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경우 3월 7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거주승 신고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다.

본사 주지 입후보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중에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경력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경력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충청 답사로 사찰 유물 소유권 확보 나선다

매장특위, 1차 회의 활동 논의

조계종 사찰 소유 토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경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회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 특별위원회(매장문화재특위)'가 올해는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 매장문화재특위(위원장 호암 스님)는 2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반기 활동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장 호암 스님은 "땅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발굴된 각종 성보가 소유권 문제를 이유로 다시 수장고로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사찰에서 나온 유물은 해당 사찰 또는 인근 사찰로 돌아가 예경의 대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매장문화재특위는 올해 충청지역을 현장 답사하고, 사찰에서 출토된 불상을 중심으로 본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 제정의 기반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매장문화재특위는 전반기에도 사찰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8~9일 양주 회암사지, 양양 진전사지, 국립춘천박물관을 답사하며 사지(寺址) 출토 유물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양양군이 관리하는 도의국사탑의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의국사탑을 진전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양양군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2025년 사업 예산 확정

진우 스님 "역동적 불교" 당부

조계종 직할교구 불기2569(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됐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1차 직할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할교구는 △불기 2568(2024)년도 직할교구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의 건 △불기 2569(2025)년도 직할교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직할교구 상임위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할교구 예산은 분담금회계 예산 18억8220만원, 경상회계 예산 4억2065만원, 특별회계 예산 38억4355만원으로 확정됐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현장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신도들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불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국제불교박람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국제선명상대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가 열리는 4월부터 5월까지 '불교의 달'로 지정해 종단의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해 국민 행복을 위해 종단이 제안했던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국민운동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4년 7월 17일(수) ~ 19일(금)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